

권혁홍 대중회 회장 시조 태사공 묘소 고유제 봉행

3년 후 권기(權紀) 1100년 안동권문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자



시조 태사공 묘소 고유제



권기장 안동시장예방

권혁홍 회장이 6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취임 인사차 안동을 방문했다. 권정달 명예 회장을 비롯해 이경자 사임당과 권봉도 능 동장학회 감사와 권혁환 권문회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이 함께 했다.

권혁홍 회장은 11시 능동제사에 도착하자마자 도로로 걸어입고 권갑현 제례위원이 가지고 온 한지로 만든 것을 쓰고 시조 태사공 묘소에 주과포를 차린 후 제20대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에 취임했음을 태사공께 고유(告由)했다. 권갑현 제례위원이 고유문을 낭독했다. 권혁홍 회장은 고유제가 끝나자 추원루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국가유산전문보수기술자 현장 팀장 김상희 이사로부터 공사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서 남중공 단소로 이동하여 대중회 회장 취임을 고유했다.

고유를 마치고 권혁홍 회장은 안동시 강남동 운동장길 197에 위치한 정록한정식 식당으로 이동하여 분향원로회의 회원들과 점심식사를 했다. 권정달 명예회장은 분향원로회의 고문으로 분향원로회는 안동과 의성, 영주 등에서 80이 넘고 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안동권문의 어르신들이 타의 분을 보여주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15년 됐다. 매달 식사를 같이 하고 여행도 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권정달 고문은 권혁홍 회장은 중소기업 중앙회 수석부회장이고 성격이 원만해서 회장으로 모셔야 되겠다 해서 모셨다. 이를 계기로 대중회가 변장했으면 좋겠다. 이경자 사모님은 사임당상(像)을 연속 3번이나 했다. 보통분이 아니더라고 말했다. 권재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취임을 축하

드린다. 앞으로 대중회가 회장님을 중심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권혁홍 회장은 종친 어른들을 뵙는 것은 처음이다. 어른 신들을 뵈니 든든하고 자심감이 생긴다. 3년 후 권기 1100년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자문을 받아서 안동권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협조를 바란다 말했다. 한정식 점심은 권혁홍 회장이 취임 인사차 대접하고 금일봉도 전달했다.

권정달 명예회장과 권혁홍 회장 등 일행은 안동시청으로 이동하여 6.3지방선거에서 재선한 권기창 안동시장을 예방했다. 권정달 명예회장은 2029년이면 권기 1100년이다. 이를 계기로 안동권문이 사회윤리를 배양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혁홍 회장은 시장이 안동권씨 니가 기분이 좋다. 음으로 양으로 많은 협조를 바란다 말했다. 권기창 시장은 사람들이 주말에 숙박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안동에 많이 온다. 특히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정

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안동은 전임 인구가 더 많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1년에 1800여 명이 사망하는데 출생은 600명 정도다. 3배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조금씩 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행은 안동종친회관을 방문했다. 권철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권혁홍 회장님 당선되시고 처음 뵈니 너무 기쁘다. 더구나 존경하는 권정달 총재님까지 오시니 정말 기쁘고, 사모님까지 방문하신 것은 처음 인 것 같다. 기대가 크다. 저는 주어진 소명을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역사에 남을 존경받는 회장님이 되시길 바란다 말했다. 권혁홍 회장은 안동권씨 분향이라서 더 좋다. 그동안 종친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적이 없다. 앞으로 총재님께 배우고 안동 어르신들께 배워서 안동권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봉도 감사는 권혁홍 회장께서 큰 집 지셨다. 삼고초려 해서 모셨으니 안동에서 적극 협력해 주셔

야 한다. 일가끼리이니 어려운 일 있으면 이해하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혁홍 회장은 권철환 안동종친회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권혁홍 회장은 우장식육 식당에서 안동종친회 회원들과 제례위원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일행은 안동의 한옥호텔 락고재에서 여장을 풀었다. 25일에는 하회마을에 위치한 서애 류성룡 선생의 종가 충효당을 예방하고 차담을 나누었다. 또한 병산서원을 방문하고 복석원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하회탈춤을 관람했다. 안동에서 일정을 마친 권혁홍 회장은 영주로 가서 권영창 명예회장을 만났다. 권영창 회장은 내외분이 영주까지 오셔서 고맙다. 대중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권혁홍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대중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다. 60여 년 기업하면서 한 번도 노사관계에 문제된 적이 없다. 안동권문이 화합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남중공 단소 고유제



안동종친회방문

권혁홍 회장 삼태사묘 참배



권혁홍 회장은 권정달 명예 회장과 권봉도 능동장학회 감사, 이경자 사임당, 권오익 안동 사무소 사무국장, 권혁환 권문회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과 함께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과 안동김씨 김선평과 안동장씨 장정필의 위패가 배향되어 있는 태사묘를 방문하고 시조 태사공께 참배했다.

참배 후 권혁홍 회장은 권오익 국장으로 부터 태사묘의 역사와 후삼국시대 병산대첩으로 후백제 견훤을 크게 물리치고 시조 태사공이 권씨로 사성을 받은 이야기, 이후 고창군을 부로

승격시키고 나라를 안전케 했다는 의미로 지명을 안동(安東)으로 바꾸고 삼태사 식읍으로 내린 이야기,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에서 70여 일간 머물렀던 이야기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보물각에 들러 해설사로부터 보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안동권씨 관리사무소의 성화보 등 서책을 살펴보고 권오익 국장으로 부터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장의한 삼태사묘 관리위원장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6年 7月 찬조금 내역

<찬조금>

권혁환 신대양제지 부회장(권혁홍 회장 장남) 50,0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합계 : 50,000,000원

안동권씨대중회

제20대 권혁홍 대중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 ‘골판지 외길’ 60년

금탑산업훈장(17대 대통령李明박). 2010.

철탑산업훈장(15대 대통령김대중). 1998.

대통령표창(14대 대통령김영삼). 1994.

권혁홍 회장은 빠른 판단력과 성실함으로 그룹을 경영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음
“일감이 있으면 하루 열다섯 시간이고 스무 시간이고 일했다.”

“8시간 일하는 것과 16시간 일하는 것은 능률이 몇 배는 차이가 난다.”

-언론 인터뷰에서

안동권씨 대중회